

2013년 2월 UN-NGO 소식지

정의 실현을 위한 여성의 권리- 인권사무소

유엔 정기총회는 1979년 여성차별 철폐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여성차별의 종식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실행 의제를 설정하였다.

이 협약은 다음의 사항들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기회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정치적, 공적 생활
- 교육권, 건강권, 취업할 권리에 대한 보호
- 권리가 침해 당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여성에 대한 몇몇 전통적인 태도와 정책으로 인해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면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도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으며 또 여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등판무관은 유엔 여성국과 함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권고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185개국으로부터 여성에 관한 정의 실현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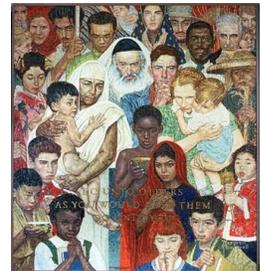


세계 종교간 화합의 날, 2월 11-15

매 2월마다 세계 종교 화합을 위한 총회의 의장은 유엔 가족에 속한 모든 이들을 초청하여 이날을 기념한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 간에 상호 이해와 조화 그리고 협력을 높이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주간에 나온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종교 상호간의 이해와 대화는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 매해 2월의 첫 주간을 세계종교간 화합의 날로 선포한다.
3. 이 주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모스크, 시나고그, 사찰 그리고 각종 경배의 장소에는 하느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혹은 선함에 대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종교간 화합에 대한 메시지와 그에 대한 의지를 각 종교의 전통에 따라 자발적으로 전파한다.



이주 어린이들을 위한 여성지위위원회의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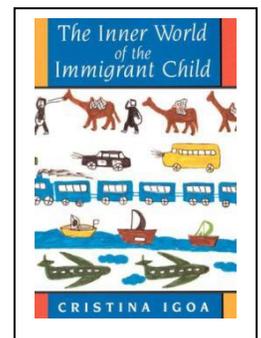
여성지위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위원회의 회의기간 동안 NGO 들은 유엔 공동체의 주의를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올해는 진 스톨너 나뮤르 노틀담 수녀와 나 메리 조 톨 수녀는 교사이며 작가인 크리스티나 이고아와 함께 이를 진행하였다.

크리스티나 이고아는 새롭게 이주한 어린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가로막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다루는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했다.

크리스티나는 이야기와 예술, 음악 안에서 어린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학생이었던 이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느낀 것을 기록한 책을 집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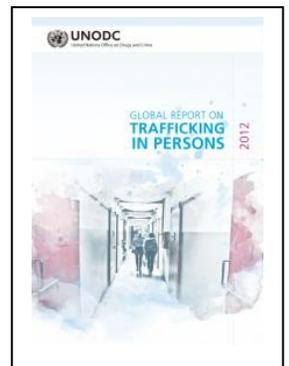


총본원 JPIC 담당자와 UN-NGO 노틀담 수녀들 간의 협력

정의, 평화, 창조보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로마의 메리 페트리샤 도로벡 수녀와 뉴욕의 메리 조 톨 수녀는 종종 스카이프를 통해 대화를 나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도직을 함께 해오며 이 두 수녀들은 국내외의 정의에 관한 관심을 학생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의 UN 등 여러 형태의 작업들을 함께 해왔다. 이 두 수녀들은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함께 지내며 전 세계에서 온 여성들을 만나고 NGO, 여성 담당 관료들 그리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른 단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위원회의 최종 문서 초안을 검토해 하는 그룹과 일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또한 지역 교섭단체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NGO 과 연대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것이다.

2012 년 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는 국제 인신매매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국제적인 인신매매 패턴에 대한 새 데이터와 각종 데이터, 근본 원인, 인신매매단, 착취의 형태, 생존자 사례, 법적 제제, 정의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 등을 담고 있다. 193 개국 중 163 개국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에는 브라질, 독일, 케냐,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한국, 모잠비크, 니카라구아, 페루, 필리핀 그리고 미국이 있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많은 어린이들이 섹스, 강제노동 그리고 장기적출을 위해 인신매매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당하는 이들의 55-60%가 여성으로 추정되며 어린 소녀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75%가 될 것이다.
-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당하는 이들의 27%가 어린이들이다. 인신매매 당하는 세 명의 어린이 중 두 명이 여자아이이고 한 명이 남자아이이다.
-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 되는 것이 전체 중 58%에 해당되며 강제 노동을 위해서는 36%이다. 지난 4년간 강제 노동 위한 인신매매가 두 배 증가하였다.
- 136개국에서 온 인신매매 희생자들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118개국에 버려졌다.

UN SND 페이스북: <http://tinyurl.com/3ccygc3>